

와이지 엔터테인먼트 (122870)

BUY (Initiate)

주가(9/26) 86,600원
목표주가 115,000원

2012.9.27

지금부터 갈 데까지 가볼까 !

강남스타일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Billboard Hot 100 1위에 오른 최초의 가요가 될 것이다. 이 신드롬은 한류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약진에 와이지엔터가 선봉에 설 것이다. 2012년 싸이를 통해 YG는 248억의 매출과 72억의 영업이익이 반영될 것이며, 이는 중장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2013E EPS에 성장프리미엄을 반영한 P/E 25X를 적용, TP 115,000원을 제시한다.



Small Cap

Analyst 장영수 02) 3787-5106
ysjang@kiwoom.com
박근영 02) 3787-4965
한상준 02) 3787-4709
이승욱 02) 3787-4707

키움증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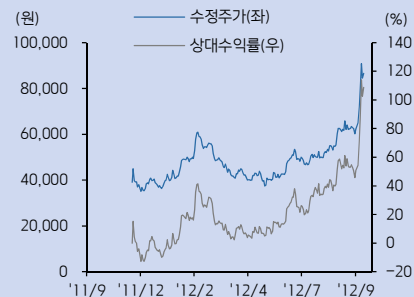
Stock Data

KOSDAQ (9/26)		520.71pt	
시가총액(억원)		8,938억원	
52주 주가동향	최고가	최저가	
	90,800원	35,150원	
최고/최저가 대비 등락율	-4.63%	146.37%	
수익률	절대	상대	
	1M	38.6%	32.4%
	6M	90.3%	91.3%
	1Y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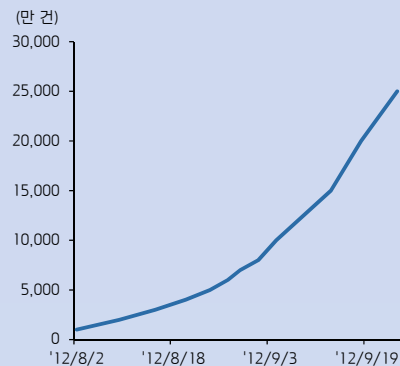
Company Data

발행주식수(천주)	10,321천주	
일평균 거래량(3M)	340천주	
외국인 지분율	6.75%	
배당수익률(12.E)	0.00%	
BPS(12.E)	10,346원	
주요 주주	양현석	35.79%
	삼성자산운용	8.60%
매출구성(11)	음반/음원	25.8%
	콘서트공연매출	22.3%

Price Trend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건수



Contents

Summary 3

- > 목표주가 115,000원으로 Buy의견 제시하며 Coverage 개시 3
- > Billboard Hot 100 최초의 한국 가요 1위 ? 현실이다 3
- > 馬行處 牛亦去 - 말이 가는 곳이라면, 소도 갈 수 있다 3

I. Intro: '문화'산업? 문화'산업' ? 4

- > 강남스타일 신드롬을 보는 우리의 관점 4

II. Billboard Chart 정복의 의미 7

- > Billboard: 미국 대중문화의 3대 Key Word 가운데 하나 7
- > '강남스타일', 한국 가요 최초의 Billboard Hot 100 1위 확정적 9

III. 얼마나 벌 수 있을까? 13

- > 매출, 수익배분, 그리고 이후의 활동 13

IV. 馬行處 牛亦去 17

- > YG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17

V. TP 115,000원 BUY로 Coverage 개시 18

- > 본격적 성장 가도 진입 18

VI. 참고 19

- > 당사는 9월 26일 현재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Summary

>>> 목표주가 115,000원으로 Buy의견 제시하며 Coverage 개시

싸이와 GD, 빅뱅의 일본 콘서트를 앞세운 하반기 대공세 전환으로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4Q12 실적부터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와이즈엔터테인먼트에 대해 2013E EPS 4,701원에 Target P/E 25X를 적용하여 115,000원의 목표주가를 제시한다. 싸이와의 수익 배분을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싸이의 일본 진출 가능성 등은 수익추정에서 배제하였으며, MD 상품 등 새로운 수익원의 지속적인 발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실적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Billboard Hot 100 최초의 한국 가요 1위 ? 현실이다.

세계 음악산업의 지상도를 읽을 수 있는 Billboard Hot 100에서 한국 가요가 1위를 차지한다는 말도 안될 법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Digital Download의 중요성 증대와 지금까지의 iTunes 차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신드롬을 통해 YG가 2012년중 매출액 248억을 달성하고 영업이익 72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로열티가 싸이를 통해 유입되겠지만, 우리의 예상을 넘는 해외 진출 성공 시나리오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馬行處, 牛亦去

옛 말에 ‘馬行處, 牛亦去’라는 말이 있다. ‘말이 가는 곳이라면, 소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우연한 기회로 SNS에 실려 글로벌 스타가 되어 버린 싸이가 간 길로 다른 한국 아티스트, 특히 YG 아티스트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싸이에서 시작된 해외 분위기 호전은 GD의 신보 ‘One of a Kind’로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신규로 발매된 GD의 음반은 9/29자 Billboard 월드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중이며, Billboard의 또 하나의 메인 차트인 Billboard 200에서 161위로 첫 진입하였다. 아직 큰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YG의 성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싸이가 ‘말’이었다면, GD가 ‘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한다.

투자지표	2009	2010	2011E	2012E	2013E
매출액(억원)	448	781	1,240	1,730	1,950
증감율(%YoY)	25.4	74.5	58.7	39.5	12.7
영업이익(억원)	103	173	372	649	761
증감율(%YoY)	40.0	67.5	114.6	74.4	17.2
EBITDA(억원)	121	203	399	675	786
세전이익(억원)	127	176	366	640	751
순이익(억원)	98	129	277	485	569
EPS(원)	1,308	1,663	2,733	4,701	5,514
증감율(%YoY)	134.6	27.1	64.4	72.0	17.3
PER(배)	0.0	22.1	31.7	18.4	15.7
PBR(배)	0.0	4.8	8.4	5.8	4.2
EV/EBITDA(배)	-0.9	15.0	20.4	11.4	9.1
영업이익률(%)	23.1	22.2	30.0	37.5	39.0
ROE(%)	63.8	26.7	30.3	37.0	31.0
순부채비율(%)	-53.6	-84.0	-76.0	-80.2	-8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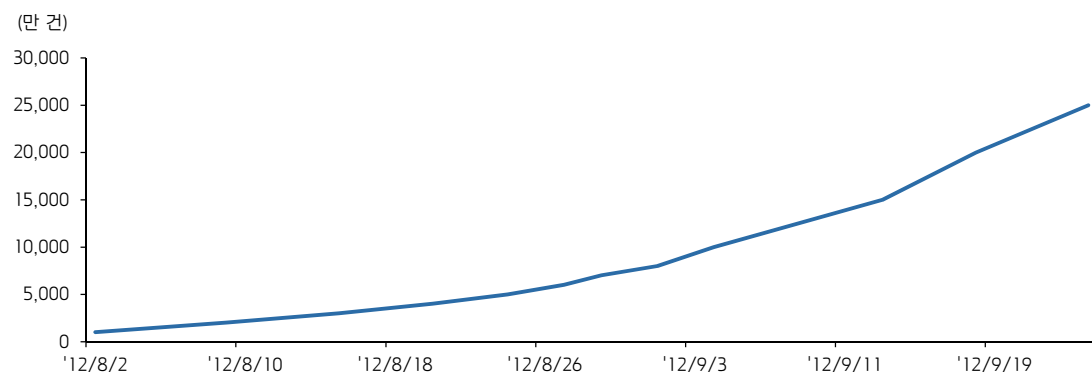
I. Intro: ‘문화’산업? 문화‘산업’ ?

>>> 강남스타일 신드롬을 보는 우리의 관점

전세계를 장악한 강남스타일 신드롬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YouTube에 올라가고 난 이후 두 달여, 전세계가 들끓고 있다. 8월 2일 조회수 1,000회에서 8월 24일 5,000회, 9월 4일 1억회, 9월 13일 1.5억회, 9월 18일 2억회까지 치솟아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디오클립이 되었다. 비디오에서 시작된 인기는 SNS를 타고 폭발했고, 네티즌의 강제징집을 받아 싸이의 지구정복기가 시작되었다. 미국 유명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 세계 최대의 음반사인 UMPG와의 계약, SNL-Ellen Show-MTV Music Award 출연 등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 부는 한들 한국의 무명 아티스트에게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iTunes 다운로드 순위 30개국 1위, Billboard Hot 100 11위(9/29자)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한다.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강남스타일’ M/V Youtube 조회수



자료: 언론보도 취합

신드롬을 인정하면서도 의구심을 떨치지 않는 시장

이러한, 강남스타일의 성공 이유는 이미 수 많은 언론과 연구소에서 분석자료를 내놓은 만큼 우리는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다. 지난 9/19 발간한 *Investment Idea Report 'Korean Entertainment: 우리가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다'* 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궁금증은 다음의 몇 가지였다.

첫째, 일단 ‘강남스타일’이 돈을 번다는 데 얼마나 벌 수 있는 데?

둘째, 싸이의, 그리고 ‘강남스타일’의 성공이 과거의 한 번 났다가 사라지는 One Hit Wonder와 다를 게 없지 않아?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의 창출이 있어야 투자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셋째, 과거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뜨고 나면 떠나던데? 그리고 완성된 아티스트로서의 소속계약을 맺은 싸이이니만큼 YG에 떨어지는 수익은 미미할 것 같은데?

사실 바람이 불고 있을 때는 이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인지, 시대를 바꾸는 태풍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바람의 진원지인 싸이와 YG 전부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강남스타일 신드롬은 큰 변화의 물줄기가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현상이 만들어지고 그 현상이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를 만들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 사회/정치적인 이슈를 꼬집어내지 않더라도 비디오게임 전성기에 게임산업이 변방에서 등장해 현재 실질적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한국 온라인게임의 사례나, ‘겨울연가’라는 날개짓이 만들어 낸 커다란 한류라는 흐름이나, 아이폰의 등장으로 갑작스레 만들어진 모바일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모바일 메신저-모바일게임의 사례 등등 모든 것은 하나의 현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한다.

모든 변화는 의외성에서 시작한다. 의외의 것, 소위 소비자가 만나보지 못한, 하지만 만나고 나면 무릎을 치며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라고 외치게 되는 그러한 제품-컨텐츠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싸이’ 그리고 ‘강남스타일’이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행여 ‘강남스타일’ 신드롬이 일과성으로 그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은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그 과실은 산업에 고스란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산업을 이해하려면 ‘문화’라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산업과는 달리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위 문화산업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데에는 애로점이 따른다. 바로 이번 ‘강남스타일’의 사례와 같이 의외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 의외성의 이유에는 ‘홍행’이라는 요소가 자리한다. ‘홍행’이라는 요소가 주는 사행적인 느낌은 주식시장이 요구하는 예측가능성을 차단하며, 예측 가능성의 차단은 투자대상에서의 제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의외성이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다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투자판단을 할 때 지나온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한 회사의 설비투자 트렌드를 해석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비용구조를 분석해서 임계점 이상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한 숫자를 근거로 해서 한 회사, 한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출하고 투자하기 마련이다. 엔터테인먼트산업, 문화산업에도 그러한 과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비용은 대부분 선투자되고 이익은 머느리도 모르는 홍행에 좌우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문화’를 이해해야 산업을 해석하는 방법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문화란, 어느 한 순간 벼락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의 동질성의 발현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 위에서 돈의 가치 그 이상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남들이 결핍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성공의지를 불태우는 시대에도 불현듯 등장하는 천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소위 문화산업의 성장 기반은 다양성이 인정받고 경제력에서 일정 정도 자유로워졌을 때 형성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문화산업’이 개화하는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강남스타일’ 신드롬의 최대수혜주는 1차적으로는 YG엔터테인먼트와 음악산업이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호감도 제고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강남스타일 그리고 Billboard Chart

시장이 갖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Billboard Chart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언급할 것이다. 결론 먼저 언급하면, 우리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Billboard誌의 메인 차트인 Billboard Hot 100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저 감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인 만큼 당연히 발생할 현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화된다면, 한국 음악사에 기념비적인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이후에는 소위 '월드스타 싸이'가 가는 길은 어떠한가를 언급할 것이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강의 열개로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가능할 지를 가늠해 볼까 한다.

馬行處, 牛亦去

옛말에 '말이 가는 곳에, 소도 갈 수 있다'라는 글이 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싸이가 먼저 열어놓은 길로 다른 아티스트 역시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본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K-POP에 대한 우호적 환경은 이번 신드롬을 통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며, 이후 그 길을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과거 겨울연가와 배용준 이후의 한류, 그리고 한국 문화컨텐츠 수출 증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산업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첫 단추로 Billboard Chart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자.

II. Billboard Chart 정복의 의미

>>> Billboard: 미국 대중문화의 3대 Key Word 가운데 하나

Billboard Chart 개요

우리는 Billboard를 Hollywood, Disneyland와 함께 미국 대중문화를 읽는 3대 Keyword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Hollywood가 영상산업, Disneyland가 캐릭터/애니메이션/테마파크 산업을 대표한다면, Billboard는 미국의 대중음악산업을 대표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 문화산업 수출의 첨병이었으며, Billboard Hot 100 순위가 곧 음악의 전부인 양 인식된 바 역시 사실이다. Beatles의 Hot 100 1위가 20곡이며, Elvis는 19곡이라는 것, Michael Jackson이 King of Pop이라 이야기된 근거 역시 Billboard였다. 그런 Billboard Hot 100 싱글 차트에 한국의 아티스트가, 그것도 한국어로 된 노래로 1등을 운운하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한 바 없는 역사적 순간일 수 밖에 없다.

Billboard誌는 1936년 발간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대중음악 잡지로서, 영화산업의 ‘Variety誌’, 성인지 ‘Playboy’등과 함께 미국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잡지이다. 1940년부터 Chart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1958년부터 현재의 Hot 100으로 싱글차트를 발표하고 있다. Hot 100 싱글차트 이외에 앨범차트인 Billboard 200, 방송횟수 차트인 Hot 100 Airplay, 음원 다운로드 차트인 Hot Digital Songs 등 다양한 차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차트는 당연히 Billboard 싱글차트인 Hot 100이다.

Billboard Hot 100에 대한 이해

1958년부터 서비스되어 온 Hot 100은 음악산업의 흐름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당시 유행했던 음악의 기준점이 되거나와 집계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도 음악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9/29 자(9/20 발간) 기준 1,019곡의 1위곡이 있으며, 강남스타일이 반영되기 전인 현재 최근의 1위곡은 3주 전 내한공연을 한 바 있는 Maroon 5의 ‘One More Night’이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음악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집계 방식의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이다.

현재의 집계방식은 Nielson SoundScan을 통한 1) 싱글판매량과, 2)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 3) Nielson BDS를 통한 1,000여개 방송사의 방송횟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Billboard Hot 100은 서비스 개시 이후 집계 방식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변경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가지이다.

- 1) 1998년의 싱글앨범 출시가 없이도 Hot 100에 등재될 수 있다는 것
- 2) 2005년에 시작된 Digital Download의 Hot 100 선정 요인 반영

이 두 가지 집계방식 변경을 통해 강남스타일은 Hot 100에 등재될 수 있었는데, 이는 변화되고 있는 음악퍼블리싱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산물이다.

Billboard Hot 100의 집계방식 변화

시기	집계방식	영향
1958	■ 방송횟수와 싱글판매량을 수기를 통해 집계 ■ 당시 음악산업은 주크박스를 통한 싱글 감상 위주 시장	■ 34년간 같은 방식 고수
1991	■ 음반판매량은 Nielson SoundScan을 통해 집계 ■ 방송횟수는 Nielson BDS를 통해 집계	■ 데이터의 정확도 제고 ■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변경
1995	■ 기존 첫주에는 방송횟수만 집계하고 차주부터 판매량 합산 ■ 변경안은 첫주부터 판매량과 방송횟수 동시 반영	■ 첫주 1위 데뷔 급증
1998	■ 기존 싱글발매 없이 인기 있는 노래는 Hot 100 미만영 ■ 변경안은 싱글발매 없이도 Hot 100 차트에 반영	■ 싱글의 영향력 감소 ■ 실제적 인기도 반영
2005	■ Digital Download를 차트 인기도에 반영 ■ iTunes, Amazon 등 웹퍼블리싱, 음원의 중요도 인지	■ 싱글에서 음원으로

자료: Wikipedia 등 주요 언론 참조

10여곡이 담기는 Album이 아닌 노래 한 곡을 의미하는 싱글을 대상으로 하는 Hot 100은 과거 도넛 판이라 불린 LP 디스크의 판매량을 집계하는 차트였다. 가정마다 오디오를 구비하지 못하던 시절 라디오 DJ가 틀어주던 그 디스크이며 Bar에서 주크박스 삽입되는 그 디스크이다. 하지만, 시대는 LP에서 CD로, 다시 CD에서 음원파일로 급격하게 변환되고, 전통적인 음반판매상인 Tower Record 등의 입지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그와 맞물려 iPod과 iTunes의 보급으로 사실 Billboard Hot 100에서의 오프라인 싱글 CD 판매량 집계 데이터는 유의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 Billboard Hot 100의 집계 방식은 iTunes로 대표되는 Digital Download와 전통적인 방송횟수의 합으로 결정지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차트는 별도로 Hot Digital Song(2005년 개시)과 Hot 100 Airplay(혹은 Hot Radio Song, 1984년 개시)로 발표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Digital Download

오프라인을 통한 싱글 CD 판매량이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한 바 있다. 사실 Billboard誌는 순위선정의 세 요인의 비율을 어떻게 조합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Billboard Hot 100의 순위를 결정짓는 것은 Digital Download일 것이라 확신한다. 방송횟수가 실질적인 인기를 반영하는 전통적이고,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DJ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될 여지가 있음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실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음악을 선택한 소비자의 행위는 과거 싱글 CD를 레코드점에서 구입하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하물며, 한국에서의 터무니 없는 곡당 80원 수준인 다운로드 단가와와는 차별화되는 곡당 0.99\$~1.29\$를 받고 있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강남스타일'의 2주간의 차트 순위를 보아도 동일한 추정이 가능하다. 최초 Hot 100 64위로 데뷔한 9/22자에서 Digital Song Chart에서는 25위였는데 반해, Radio Song Chart(Airplay)에서는 100위 진입이 되지 않았고, Hot 100 11위로 발표된 9/29자에서도 Digital은 4위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데 반해, Radio에서는 68위로 100위에 첫 진입했다는 것에서 Airplay 보다는 Digital Download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강남스타일’, 한국 가요 최초의 Billboard Hot 100 1위 확정적

우리가 ‘강남스타일’이 한국 가요 최초의 Billboard 1위를 확신하는 이유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우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Billboard의 Main Chart인 Hot 100에서 빠르면, 이번주에, 늦어도 다음주에는 1위를 차지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 논리에 근거한다.

- 1) Digital Song Chart가 Hot 100 순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 2) ‘강남스타일’은 미국 음악 Download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Apple의 iTunes Chart에서 9/15 1위로 올라선 이후 9/25까지 11일간 그 자리에서 내려 오지 않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Tunes가 미국 다운로드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 3) Billboard Chart의 발표일정을 이해하면, 앞으로의 순위 상승은 확실하다.

Digital Song Chart가 가장 중요하다 !

Digital Song Chart는 아주 단순한 집계 방식을 갖고 있다. iTunes, Amazon 등 대표적인 MP3 Download 결과치를 합산해 Nielsen SoundScan의 오프라인 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표한다. (2005년 이후의 차트 결과 분석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2005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7년 9개월중 총 139곡의 1위곡이 나왔으며, Digital Download 수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안착한 2008년 이후로는 총 85곡의 1위곡이 배출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기준 85곡 가운데 Hot 100 Chart에서 1위를 한 노래는 63곡이며, Top3를 차지하지 못한 노래는 6곡에 불과하다. Digital Song 1위와 Hot 100 1위를 동시에 차지한 노래가 Digital Song Chart 1위를 점유한 기간이 2008년 이후의 247주 가운데 209주를 차지하고 있어 84%에 달하고 있다.

우리가 Digital Song Chart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2005년 이후의 Billboard Digital Song Chart와 Hot 100 1위 비교표는 첨부 참조).

- 1) Digital Song Chart가 Hot 100 Chart를 선행하거나 최소한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 2) 기존에 인지도를 확보한 Artist(Britney Spears 등)나 Idol의 신곡일 경우 첫 주 높은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바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 3) Digital Download가 안정화되고 난 2008년 이후, 1위의 일주일 평균 다운로드수는 250,000회 수준이다.

Top 10 Single-Week Download Song

순위	Artist	Song	Download	일자	Download 1위 기간중 누적	Download 1위 기간	Download 1위 누적 일평균	Hot 100 순위	Hot 100 1위 기간
1	Flo Rida	Right Round	636,000	2009.02.28	2,251,000	6 주	375,167	1	6 주
2	Taylor Swift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623,000	2012.09.01	1,693,000	5 주	338,600	1	3 주
3	Kesha	Tik Tok	610,000	2010.01.08	1,721,000	5 주	344,200	1	9 주
4	Bruno Mars	Grenade	559,000	2011.01.08	1,675,000	5 주	335,000	1	4 주
5	Gotye f. Kimbra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542,000	2012.04.28	1,625,000	4 주	406,250	1	8 주
6	Justin Bieber	Boyfriend	521,000	2012.04.14				2	
7	Katy Perry	Firework	509,000	2011.01.08	645,000	3 주	215,000	1	4 주
7	Lady Gaga	Born This Way	509,000	2011.03.05	1,474,000	4 주	368,500	1	6 주
9	Maroon 5	Payphone	493,000	2012.05.05				2	
10	Flo Rida	Low	467,000	2008.01.12	2,545,757	13 주	195,827	1	10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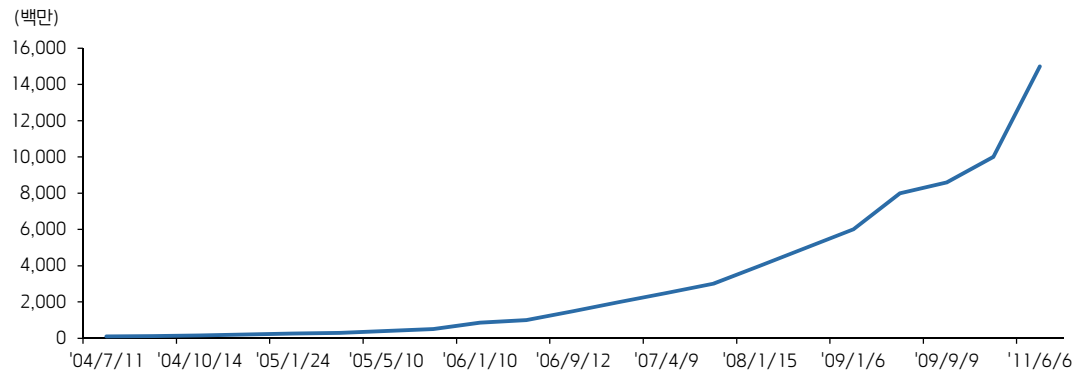
자료: Billboard, Wikipedia 재정리

2005년 차트 개시부터 현재까지 1위를 차지한 곡 가운데 일주일간 가장 다운로드를 많이 기록한 노래는 2009년 2월의 Right Round(Flo Rida)로 음원 공개 3주만에 사상 최고 기록인 636,000 다운로드를 기록한 이후 Hot 100과 Digital Song Chart 공히 6주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iTunes의 온라인 음원 시장의 장악력은 압도적

여기서 iTunes Store의 이야기를 해 보자. iTunes는 2003년 Apple의 iPod에 대응하기 위한 음악 플랫폼으로 처음 소개되어, 현재는 iPod뿐만 아니라 iPhone, iPad, iMac 등 Apple의 모든 제품과 관련된 음원, M/V를 포함한 동영상, Application, eBook 등 모든 콘텐츠를 내려받는 Apple System의 기본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유일하게 The Beatles의 음원을 서비스하는 음원서비스 사업자이며, 2,800만개 이상의 음원, 비디오, Apps를 서비스중이다. 4억명 이상의 Active User, 3.2억개의 Mobile 기기에 대응하고 있다. 음악 유통 측면에서 볼 때, 2004년 7월 1억곡 판매를 시작으로 2011년 6월까지 150억곡의 누적 음원 판매 실적을 기록중이다.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iTunes의 음원판매량



자료: Ap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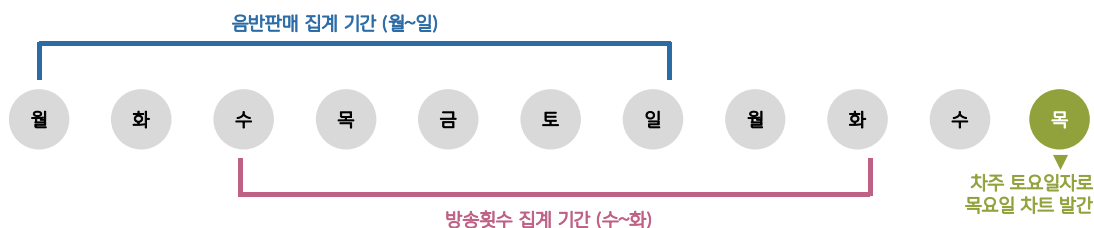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음원 유통시장에서 iTunes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Apple은 가장 먼저 DRM-free 음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5대 음반사와 연이어 제휴에 성공한 이후, iPod-iPhone-iPad 등 혁신적 모바일기기를 보급하며 실질적인 음원유통시장의 유일신으로 등극했다. 북미시장에서 음원유통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iTunes Chart는 iTunes Store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원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의 실시간 판매량을 반영하고 있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음악차트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남스타일이 9/15부터 11일 연속 iTunes 음악 다운로드 차트 1위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되고 있는 음악임을 입증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Billboard Hot 100의 집계방식을 보자

Digital Download가 중요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iTunes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Billboard Hot 100의 순위 집계방식을 알아보자. Billboard誌의 발매일자는 미국시장 매주 목요일이며 발간되는 날짜는 발간일의 차주 토요일자로 기재된다. 그렇다면, 그 주의 차트는 어느 기간의 인기도 조사가 반영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Billboard誌는 정확한 배합비율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반영되는 음반 및 음원 판매량 데이터는 발간되는 목요일이 들어 있는 전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반영되며, 방송횟수는 전주 수요일부터 발간일이 해당하는 주의 화요일까지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강남스타일'이 Hot 100 11위로 발표된 9/29자 Billboard Hot 100이 실제 발간된 날짜는 9/20이며, 음반/음원 판매량 집계기간은 9/10~16, 방송횟수 집계 기간은 9/12~18이 된다. 구구하게 집계방식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이번 집계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강남스타일'이 어느 정도의 순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Billboard Hot 100의 집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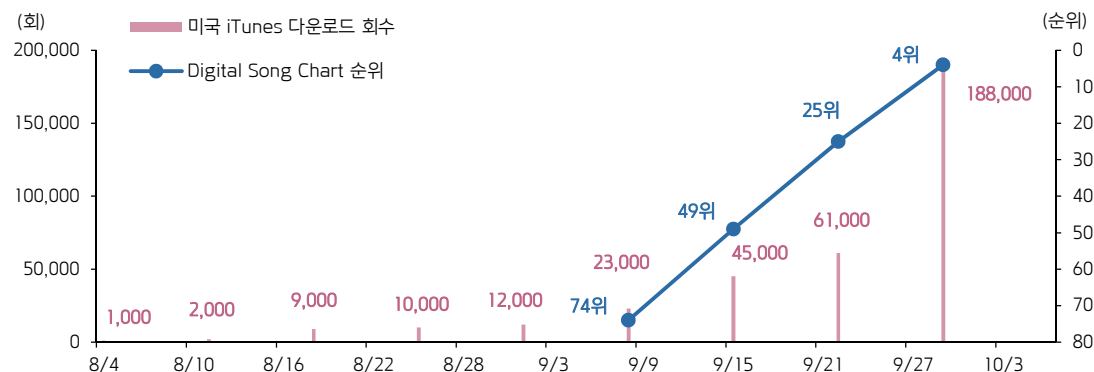


자료: Wikipedia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10/6일자 빌보드 Digital Song Chart 1위는 따놓은 당상 !

여기서 9/29자 Digital Song Chart에서의 싸이의 성과를 보자. 강남스타일은 8/4 미국 iTunes 다운로드 기준 1,000회를 시작으로 매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9/8 23,000회 다운로드 되면서 빌보드誌 Digital Song Chart 74위로 최초 진입한 이후(참고로 Hot 100 Chart에는 2주일 후인 9/22자에 64위로 진입), 전주 발간된 9/29자 차트에서는 188,000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4위에 랭크된 바 있다(지난주 Hot 100 Chart는 11위로 등재).

본격적 미국 방송 노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음원 다운로드



자료: Billboard, Wikipedia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188,000 다운로드라는 숫자, 둘째, 4위라는 성과를 달성한 집계기간이 9/10~9/16 기간 동안의 다운로드 합계라는 것이다. 188,000이라는 숫자는 비록 4위에 랭크되었지만, 첨부한 Digital Song Chart 1위곡 평균 다운로드수 250,000회에 거의 근접한 수치이다. 또한, 집계기간 9/10~9/16 주간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이 YouTube의 뮤직비디오 열풍으로부터 iTunes를 비롯한 음원 다운로드로 이전되기 시작한 첫 주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9/25 현재 11일째 iTunes 음원 다운로드 1위를 질주중인 강남스타일의 1위 기간중 지난주 4위를 달성할 때 포함된 다운로드 일자는 14일과 15일 이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한주일 내내 iTunes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질주한 9/17~9/23일의 다운로드 데이터가 집계되는 10/6일자 빌보드 Digital Song Chart 1위는 이미 파놓은 당상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은 Digital Song 1위 달성 여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는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미국언론에 다루어지기 시작한 시점과 이번주 발간되는 Chart 결과가 겹쳐진다는 점에서 내심 한주간 최다 다운로드 기록 경신을 기대해 본다. 참고로 한 주간 최다 다운로드 기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09년 2월의 Right Round(Flo Rida)로 음원 공개 3주만에 사상 최고 기록인 636,000 다운로드된 바 있다. 금요일이면 확인될 이 수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수치가 향후 ‘강남스타일’을 통해 싸이가,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근거 데이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순위를 추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알면서도, 유추를 해 본 이유는 1위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하는 성과의 크기가 달성을 못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강남스타일’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한국어로 된 최초의 Billboard Hot 100 1위 정복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근거는

- 1) Billboard Hot 100에서 Digital Download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운로드수로 1위를 집계하는 Digital Song Chart 1위를 차지한 곡이 Hot 100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절대적이고,
- 2) Digital Downloa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iTunes Chart에서 압도적인 다운로드 수로 1위를 질주중인데
- 3) 이번주에 발표되는 10/6일자 Billboard誌에 반영되는 집계 기간인 9/17~9/23일중 강남스타일이 iTunes를 포함한 전 온라인 음원유통망에서 이미 1위를 했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Billboard 1등을 달성할 ‘강남스타일’ 한 곡을 통해 싸이가, YG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

III. 얼마나 벌 수 있을까?

>>> 매출, 수익배분, 그리고 이후의 활동

예상할 수 있는 매출원은 8가지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대히트를 보면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놓여진 부분은 싸이는, 그리고 YG는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강남스타일’ 신드롬의 한 가운데에서 앞으로 이를 통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추정하는 것은 흥행산업의 성격을 도외시한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략의 열개를 잡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일단,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원은 대략 8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 1) ‘강남스타일’ 국내 음반/음원 매출액
- 2) 싸이의 국내 광고 출연료
- 3) 8/11 진행한 ‘싸이 홈백쇼’ 공연 매출액
- 4) ‘강남스타일’ iTunes를 포함한 음원 및 M/V 다운로드 매출
- 5) ‘강남스타일’ YouTube M/V pre-roll 광고 매출
- 6) 이후 싸이의 해외시장 싱글/앨범 관련 매출
- 7) 이후 싸이의 해외시장 공연 매출
- 8) 싸이 관련 MD 상품 매출

2012년 YG가 인식할 수 있는 싸이 관련 매출은 248억원, 영업이익은 72억원

보수적으로 접근한 싸이 관련 매출 및 이익 추정 (단위: 억원)

	총 매출 인식분			싸이 매출 인식분			YG 매출인식분			YG 이익 인식분		
	2012E	2013E	2014E	2012E	2013E	2014E	2012E	2013E	2014E	2012E	2013E	2014E
국내 음원/음반	13	15	20	10	11	14	13	15	20	3	5	6
국내 광고출연	50	50	50	35	35	35	50	50	50	15	15	15
국내 공연	30	60	60	6	12	12	30	60	60	6	12	12
해외 음원	150	100	100	105	70	70	150	11	11	45	11	11
기타	5	20	40	1	1	4	5	20	40	3	12	24
해외공연		1,000	1,000		200	200		20	20		20	20
계	248	1,245	1,270	157	329	335	248	176	201	72	75	88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 국내 음반/음원 매출액: 13.2억원

- 국내 음반 매출은 40,000장으로 추정한다. 온오프라인 유통마진을 제외한 음반 단가를 8,000원으로 추정하면, 3.2억원. 음원수익(벨소리, 컬러링 포함) 10억원 추정.

2) 국내 광고 출연료: 50억원

- 현재 ‘강남스타일’을 차용하여 방영되기 시작한 싸이의 광고는 LG U+, CJ제일제당, 삼성전자(지펠 냉장고), LG패션, SK컴즈 5곳이며, 이후에도 5개 정도의 CF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추정한다. 통상 최고수준의 모델료인 5억원을 고려하면 50억원 수준의 매출이 가능하다.

3) 8/11 싸이 홈백쇼 관련 매출: 30억원

4) 해외 음원 및 M/V 다운로드 관련 매출: 100억원

- 음원다운로드: 가장 핵심적인 매출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주 집계된 북미 다운로드 수가 188,000회였으며, 본격적인 다운로드가 시작된 초입인 만큼 9/27 1위가 확실시되어 발표되는 Digital Song Chart의 결과를 보면, 향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동 기간중 최소 400,000회의 다운로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다운로드 1위를 5주 정도 유지하고 1위 기간중 2,000,000회, 총 누적다운로드수 4,000,000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iTunes에서의 판매가격이 1.29\$, 아마존에서의 판매가격이 0.99\$인데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저작권자의 몫 70%를 곡당 800원 수준으로 반영하면, 총 32억원의 매출이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북미 이외 지역에서의 다운로드가 지속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34개국 iTunes Chart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운로드 매출액의 1.5배를 타 지역 매출액으로 추정하면, 총 음원 다운로드 매출액은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고가이지만, 유료다운로드 M/V 매출을 포함한다면, 총 100억원 수준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강남스타일'은 미국 Universal Republic Record와의 계약 이전에 YG의 브랜드로 유통되는 음원인 만큼 음원 관련 수익은 전액 YG의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며, 매출인식은 4Q12에 반영될 것이다.

5) 기타: YouTube Pre-roll 광고 수익: 3억원, MD 상품 2억원

- YouTube 동영상 Pre-roll 광고는 1,000 view 당 0.5\$ 수준인 만큼 4억 view 기준 3억원 수준의 매출이 반영되는 수준으로 의미 있는 매출은 아닐 것이다.
- YGeShop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MD 상품은 현재 9종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공연시기에 판매되는 만큼 큰 규모는 아니며 2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6) 해외 공연: 2013년 이후 사이 연간 200억원 수익 인식 가능, YG 인식 로열티 20억원 수준

- 음반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공연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과거에는 음반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물렀던 공연이, 이제는 역으로 공연을 위한 레퍼토리 확보와 티켓 파워 유지 차원에서 음반을 출시하는 관점으로 전환될 정도이다.
- 이미 한국에서 콘서트형 가수였던 사이는 성공적인 후속싱글 출시가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1월중 첫 북미 싱글이 발매될 예정).
- 참고로 글로벌 투어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 아티스트의 회당 관객동원수는 30,000명, 평균 회당 매출액은 30억원 수준으로 국내에서 사이가 진행한 홈백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첨부 2: 역대 콘서트 매출 순위 자료 참조).
- 이미, 2만석의 뉴욕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의 공연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단독 콘서트라기 보다는 매니지먼트사인 Schoolboy Record의 소속 아티스트 Justin Bieber의 11월 28일 공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메디슨 스퀘어가든은 2011년 SMTOWN Concert가 열렸던 공연의 메카와 같은 곳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 1년 이전에 대관이 끝나 있기에 사이처럼 갑작스레 뜬 스타가 깜작 공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 기발표한 기존의 히트곡이 아무리 미국 현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만큼 스페셜 게스트로의 참여는 확정적이라 판단한다.

- 하지만, 스페셜게스트로의 합류 수준도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메인 아티스트 Justin Bieber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idol star이며, 또 다른 스페셜 게스트 역시 2012년 6월 7주간 Hot 100 1위를 기록한 Call Me Maybe를 부른 Carly Rae Jepsen인데 둘 다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티스트인 만큼 미국 현지에서의 반향 역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Livenation 등 콘서트 전문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콘서트 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공연문화에 익숙한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연간 30회 이상의 공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 하지만, 이는 해외시장 파트너인 Schoolboy Music(매니지먼트)와 Universal Republic Record(음반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싸이의 해외활동에 대한 지분이 낮은 YG에 인식되는 로열티는 싸이가 인식할 수익분 200억원의 10% 수준인 연간 20억원으로 추정한다.

7) 해외 음반/음원: 싸이 2년 주기 앨범 1장, 싱글 5곡, 연간 음반/음원 총매출 100억원 추정

- 11월 음반/음원시장의 최고성수기인 추수감사절 기간 이전에 영어로 된 싱글음반 한 장이 먼저 발매될 예정이다.
- 현재 국내에서 발매된 6집이 완제품으로 수출되고는 있지만, 현지에서 직접 제작된 싱글음반이 발매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새 노래가 기존의 ‘새’, ‘챔피언’ ‘연예인’ 등의 영어버전일 수도,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노래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강남스타일’ 수준의 신드롬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의 인기는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왜냐하면, 강남스타일의 인기가 아직 식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속 싱글인 관계로 대중의 높은 아티스트 인지도 기반 위에서 출시될 것이며, 현지 파트너십 계약 이후 처음으로 발매되는 음반인 관계로 마케팅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는 11월의 싱글 발매를 통해 총매출액은 음반과 음원을 합쳐 50억원, 싸이의 몫은 70%인 35억원, YG의 몫은 4억원 수준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 첫 싱글이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둔다면, 2년에 앨범 한 장, 싱글 4~5곡 수준의 안정적인 활동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렇다면 연간 싸이를 통한 음반/음원 총 매출액은 100억원, 싸이의 인식분 70억원, YG의 인식분 11억원 수준이 반영될 것으로 추정한다.

수익배분은 국내는 8:2, 해외는 싸이가 인식하는 매출의 10%로 추정

매출 인식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진행되는데 국내의 경우와 해외의 경우에 있어 상이한 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내 매출 전액과 이번 ‘강남스타일’ 해외음원매출은 다운로드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YG엔터테인먼트가 인식한 이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된다. 우리는 관련 수익배분을 (싸이:YG, 8:2)로 추정하였으며, 향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있어 싸이 귀속분 가운데 10~15%만이 YG로 반영된다는 보수적인 수익배분율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YG의 매출인식분은 2012E 248억원, 2013E 176억원, 2014E 201억원이 될 것이며, 비용을 차감한 이익은 각각 72억원, 75억원, 8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은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하며,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싸이의 일본진출 관련 내용은 수익추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인데, 일본에서의 성공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성공의 배경 위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한다. 일본시장은 Schoolboy Music-Universal과는 상관없이 기존 일본 현지 합작레이블인 YGEX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YG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IV. 馬行處 牛亦去

>>> YG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GD의 신보 One of a Kind, Billboard World Album 1위, Album Chart 161위 진입 !

옛 말에 ‘馬行處, 牛亦去’라는 말이 있다. 말이 가는 곳이라면, 소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우연한 기회로 SNS에 실려 글로벌 스타가 되어 버린 싸이가 간 길로 다른 한국 아티스트, 특히 YG 아티스트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미 Big Bang과 2NE1의 일본으로부터의 해외 진출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멤버 각자의 솔로 및 유닛 활동을 통해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싸이에서 시작된 해외 분위기 호전은 GD의 신보 ‘One of a Kind’로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신규로 발매된 GD의 음반은 9/29자 Billboard 월드앨범차트에서 1위를 기록중이며, Billboard의 또 하나의 메인 차트인 Billboard 200에서 161위로 첫 진입하였다. 아직 큰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YG의 성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싸이가 ‘말’이었다면, GD가 ‘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한다.

Big Bang의 솔로활동으로서 GD의 성과에 이어, 2NE1의 성과도 기대해 볼만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지한파 아티스트인 Will I.A.M.과의 협업은 이미 2년전부터 진행중이며, Will.I.A.M.이 만든 곡을 가지고 북미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바 싸이의 성공을 등에 업고 추가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Will I.A.M.은 2009~10년 년 3곡의 싱글(Boom Boom Pow-I Gotta Feeling-Imma Be)를 연달아 Billboard Hot 100 1위에 올리며 28주간 차트를 점령했던 Black Eyed Peas의 리더이다. 또한, 2NE1은 Adidas의 글로벌 프로모션 아시아 모델로 선정되어 현재 전세계에 방영중에 있다. 작게는 CF매출이 발생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잠재적 공략대상에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GD, 앨범차트 진입, World Album 1위,



자료: Billboard 온라인 캡처

Adidas Global 모델 2NE1



자료: ADIDAS

V. TP 115,000원 BUY로 Coverage 개시

>>> 본격적 성장 가도 진입

싸이의 강남스타일 신드롬에 GD의 신보, 빅뱅 일본 공연 등 실적 개선 호재 만발

싸이의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매출 반영 개시, GD의 신보 흥행 청신호, 빅뱅의 일본 공연 등 상반기까지의 부진을 딛고 대폭적인 실적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싸이와 관련된 수익배분을 보수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만 싸이 관련 영업이익의 반영분은 72억에 달할 전망이며, 일본 활동 본격화를 통한 이익증대 효과는 확실시된다. 11월 교세라돔, 12월 도쿄돔과 후쿠오카 돔 공연이 12월 중 진행될 예정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원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내년의 성장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2013년 2NE1, Big Bang의 해외 진출 기대에 신인 그룹 추가는 덤

싸이의 의외의 월드스타 등극을 통해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2년여 준비해 온 2NE1과 BigBang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외에 K-Pop Star를 통해 발굴한 신인 아티스트와 새로운 걸그룹의 데뷔 예정 등 추가적인 라인업 확대를 통한 2대 그룹(Big Bang, 2NE1)에 대한 높은 비중은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EPS 4,701원에 P/E 25X 적용. Target Price 115,000원 BUY 의견 제시

싸이와 GD를 앞세운 하반기 대공세 전환으로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4Q12 실적부터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2013E EPS 4,701원에 Target P/E 25X를 적용하여 115,000원의 목표주가를 제시한다. 싸이와의 수익배분을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싸이의 일본 진출 가능성 등은 수익추정에서 배제하였으며, MD 상품 등 새로운 수익원의 지속적인 발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실적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YG 매출 및 이익 추정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E	2014E
매출액	186	357	448	780	1,240	1,730	1,950
음반 및 디지털음원	92	133	139	203	380	380	450
음반	59	65	81	112	150	180	180
디지털음원	33	68	58	91	230	200	270
공연수익	15	49	64	174	160	250	300
광고모델	32	69	105	119	200	250	250
로열티수익	3	34	46	74	250	500	550
기타	44	72	94	210	250	350	400
영업이익	14	73	103	178	372	649	761
순이익	16	42	98	129	277	485	569
OPM	8%	20%	23%	23%	30%	38%	39%
NPM	9%	12%	22%	17%	22%	28%	29%

자료: YG엔터테인먼트, 카움증권 추정

VI. 참고

Billboard Digital Song Chart와 Hot 100 1위 (2005년)

No. 1 Digital Songs				Hot 100 No.1 Singles		
Issue date	Song	Artist(s)	Weekly sales	Pick Position	Song	Artist(s)
08-Jan	"Drop It Like It's Hot"	Snoop Dogg	32,345			
15-Jan			33,890			
22-Jan			39,758			
29-Jan	"Boulevard of Broken Dreams"	Green Day	39,576	2위	"Let Me Love You"	Mario
05-Feb			44,372			
12-Feb			39,557			
19-Feb			40,247			
26-Feb			55,176			
05-Mar			55,351			
12-Mar	"Candy Shop"	50 Cent featuring Olivia	50,461			
19-Mar			47,821			
26-Mar			47,323			
02-Apr			40,065			
09-Apr			36,038		"Candy Shop"	50 Cent featuring Olivia
16-Apr	"Switch"	Will Smith	39,830	7위		
23-Apr	"Beverly Hills"	Weezer	40,406	10위		
30-Apr			50,387			
07-May			58,328			
14-May			55,695			
21-May	"Hollaback Girl"	Gwen Stefani	61,531		"Hollaback Girl"	Gwen Stefani
28-May			61,497			
04-Jun			61,166			
11-Jun			55,034			
18-Jun			48,639		"We Belong Together"	Mariah Carey
25-Jun			52,345			
02-Jul	"Don't Phunk With My Heart"	The Black Eyed Peas	48,701	3위		
09-Jul			42,003		"Inside Your Heaven"	Carrie Underwood
16-Jul	"Hollaback Girl"	Gwen Stefani	45,080			
23-Jul	"These Boots Are Made for Walkin'"	Jessica Simpson	42,755	14위		
30-Jul			35,808			
06-Aug			40,605			
13-Aug	"Pon de Replay"	Rihanna	40,108		"We Belong Together"	Mariah Carey
20-Aug			41,349			
27-Aug			38,165			
03-Sep	"Just the Girl"	The Click Five	43,013	11위		
10-Sep			35,566			
17-Sep			80,684			
24-Sep	"Gold Digger"	Kanye West featuring Jamie Foxx	76,635			
01-Oct			71,607			
08-Oct			69,482			
15-Oct	"Photograph"	Nickelback	77,143	2위		
22-Oct			71,250		"Gold Digger"	Kanye West featuring Jamie Foxx
29-Oct			62,910			
05-Nov	"Gold Digger"	Kanye West featuring Jamie Foxx	61,651			
12-Nov			58,617			
19-Nov			49,316			
26-Nov	"My Humps"	Black Eyed Peas	57,720	3위		
03-Dec	"Hung Up"	Madonna	47,440	7위		
10-Dec			51,237		"Run It!"	Chris Brown
17-Dec	"When I'm Gone"	Eminem	45,819	8위		
24-Dec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Mariah Carey	41,316	-		
31-Dec	"Don't Forget About Us"	Mariah Carey	39,088		"Don't Forget About Us"	Mariah Carey

자료: Billboard, Wikipedia

Billboard Digital Song Chart와 Hot 100 1위 (2006년)

No. 1 Digital Songs				Hot 100 No. 1 Singles		
Issue date	Song	Artist(s)	Weekly sales	Pick Position	Song	Artist(s)
07-Jan	"Laffy Taffy"	D4L	54,155		"Don't Forget About Us"	Mariah Carey
14-Jan			175,267		"Laffy Taffy"	D4L
21-Jan	"Dirty Little Secret"	The All-American Rejects	70,750	9위	"Grillz"	Nelly featuring Paul Wall, Ali and Gipp
28-Jan	"Check on It"	Beyoncé featuring Slim Thug and Bun B	61,294			
04-Feb		Zac Efron and Vanessa Hudgens	77,755			
11-Feb	"Breaking Free"		85,246	4위	"Check on It"	Beyoncé featuring Slim Thug
18-Feb			104,513			
25-Feb	"You're Beautiful"	James Blunt	111,132			
04-Mar			108,660		"You're Beautiful"	James Blunt
11-Mar			97,961			
18-Mar	"So Sick"	Ne-Yo	119,765		"So Sick"	Ne-Yo
25-Mar			104,748			
01-Apr			106,522		"Temperature"	Sean Paul
08-Apr			115,298			
15-Apr	"Bad Day"	Daniel Powter	112,108		"Bad Day"	Daniel Powter
22-Apr			114,608			
29-Apr			114,975			
06-May			118,397			
13-May			169,570			
20-May	"SOS"	Rihanna	149,432		"SOS"	Rihanna
27-May			90,804			
03-Jun	"Bad Day"	Daniel Powter	84,710		"Ridin"	Chamillionaire featuring Krayzie Bone
10-Jun	"Promiscuous"	Nelly Furtado featuring Timbaland	96,594			
17-Jun			266,664		"Hips Don't Lie"	Shakira featuring Wyclef Jean
24-Jun	"Hips Don't Lie"	Shakira featuring Wyclef Jean	164,588		"Do I Make You Proud"	Taylor Hicks
01-Jul			122,256			
08-Jul	"Promiscuous"	Nelly Furtado featuring Timbaland	139,550			
15-Jul			124,790		"Promiscuous"	Nelly Furtado featuring Timbaland
22-Jul			99,106			
29-Jul			90,127			
05-Aug	"Crazy"	Gnarls Barkley	92,403	2위		
12-Aug			98,314			
19-Aug			114,249		"London Bridge"	Fergie
26-Aug	"London Bridge"	Fergie	106,320			
02-Sep			114,524			
09-Sep			249,903			
16-Sep	"SexyBack"	Justin Timberlake featuring Timbaland	215,721		"SexyBack"	Justin Timberlake
23-Sep			158,765			
30-Sep			172,408			
07-Oct			107,046			
14-Oct	"How to Save a Life"	The Fray	88,604	3위		
21-Oct	"Lips of an Angel"	Hinder	80,938	3위		
28-Oct			74,670		"Money Maker"	Ludacris featuring Pharrell
04-Nov	"Smack That"	Akon featuring Eminem	91,573	2위		
11-Nov			123,298		"My Love"	Justin Timberlake featuring T.I.
18-Nov	"My Love"	Justin Timberlake featuring T.I.	106,350			
25-Nov	"Fergalicious"	Fergie featuring will.i.am	115,470			
02-Dec	"I Wanna Love You"	Akon featuring Snoop Dogg	146,016		"I Wanna Love You"	Akon featuring Snoop Dogg
09-Dec			109,665			
16-Dec	"Irreplaceable"	Beyoncé	95,717			
23-Dec	"Fergalicious"	Fergie featuring will.i.am	82,504	2위	"Irreplaceable"	Beyoncé
30-Dec	"Irreplaceable"	Beyoncé	87,611			

자료: Billboard, Wikipedia

Billboard Digital Song Chart와 Hot 100 1위 (2007년)

No. 1 Digital Songs				Hot 100 No. 1 Singles		
Issue date	Song	Artist(s)	Weekly sales	Pick Position	Song	Artist(s)
06-Jan	"Irreplaceable"	Beyoncé	110,149			
13-Jan	"Fergalicious"	Fergie	294,797	2위		
20-Jan		featuring will.i.am	142,147		"Irreplaceable"	Beyoncé
27-Jan	"Irreplaceable"	Beyoncé	98,251			
03-Feb			162,356			
10-Feb	"This Ain't a Scene, It's an Arms Race"	Fall Out Boy	139,882	2위		
17-Feb			107,648		"Say It Right"	Nelly Furtado
24-Feb			101,076		"What Goes Around...Comes Around"	Justin Timberlake
03-Mar	"What Goes Around... / ...Comes Around"	Justin Timberlake	146,752			
10-Mar	"This Is Why I'm Hot"	MIMS	135,139		"This Is Why I'm Hot"	Mims
17-Mar			148,520			
24-Mar	"Glamorous"	Fergie featuring Ludacris	165,919		"Glamorous"	Fergie featuring Ludacris
31-Mar			154,466			
07-Apr	"Beautiful Liar"	Beyoncé featuring Shakira	150,068	3위	"Don't Matter"	Akon
14-Apr	"The Sweet Escape"	Gwen Stefani featuring Akon	140,242	2위		
21-Apr			248,168		"Give It to Me"	Timbaland featuring Nelly Furtado and Justin Timberlake
28-Apr	"Give It to Me"	Timbaland featuring Nelly Furtado and Justin Timberlake	180,648			
05-May	"Girlfriend"	Avril Lavigne	156,564		"Girlfriend"	Avril Lavigne
12-May			243,584		"Makes Me Wonder"	Maroon 5
19-May	"Makes Me Wonder"	Maroon 5	177,158		"Buy U a Drank (Shawty Snappin')"	T-Pain featuring Yung Joc
26-May			130,747		"Makes Me Wonder"	Maroon 5
02-Jun			163,908			
09-Jun	"Umbrella"	Rihanna featuring Jay-Z	276,705			
16-Jun			234,049		"Umbrella"	Rihanna featuring Jay-Z
23-Jun			220,830			
30-Jun			187,825			
07-Jul			159,010			
14-Jul	"Hey There Delilah"	Plain White T's	145,574		"Hey There Delilah"	Plain White T's
21-Jul			149,789			
28-Jul			132,150			
04-Aug			142,417			
11-Aug	"Beautiful Girls"	Sean Kingston	260,368		"Beautiful Girls"	Sean Kingston
18-Aug			234,507			
25-Aug			154,789			
01-Sep			124,222		"Big Girls Don't Cry"	Fergie
08-Sep	"Stronger"	Kanye West	135,495		"Crank That (Soulja Boy)"	Soulja Boy Tell 'Em
15-Sep	"Crank That (Soulja Boy)"	Soulja Boy Tell 'Em	143,611			
22-Sep			170,858		"Stronger"	Kanye West
29-Sep	"Stronger"	Kanye West	205,177			
06-Oct	"Crank That (Soulja Boy)"	Soulja Boy Tell 'Em	182,658		"Crank That (Soulja Boy)"	Soulja Boy Tell 'Em
13-Oct	"Gimme More"	Britney Spears	179,290	3위		
20-Oct	"Crank That (Soulja Boy)"	Soulja Boy Tell 'Em	180,503			
27-Oct			165,826			
03-Nov	"Kiss Kiss"	Chris Brown featuring T-Pain	158,874			
10-Nov			187,182		"Kiss Kiss"	Chris Brown featuring T-Pain
17-Nov	"Apologize"	Timbaland featuring OneRepublic	158,304	2위		
24-Nov			155,871			
01-Dec	"No One"	Alicia Keys	209,776			
08-Dec			182,089		"No One"	Alicia Keys
15-Dec			141,469			
22-Dec	"Low"	Flo Rida featuring T-Pain	149,648			
29-Dec			159,277			

자료: Billboard, Wikipedia

Billboard Digital Song Chart와 Hot 100 1위 (2008년)

No. 1 Digital Songs				Hot 100 No. 1 Singles		
Issue date	Song	Artist(s)	Weekly sales	Pick Position	Song	Artist(s)
05-Jan	"Low"	Flo Rida featuring T-Pain	177,518		"Low"	Flo Rida featuring T-Pain
12-Jan			467,149			
19-Jan			231,668			
26-Jan			188,025			
02-Feb			179,772			
09-Feb			169,885			
16-Feb			178,863			
23-Feb			171,713			
01-Mar			178,148			
08-Mar			152,622			
15-Mar	"Love In This Club"	Usher featuring Young Jeezy	197,966	61위	"Love in This Club"	Usher featuring Young Jeezy
22-Mar	"Hallelujah"	Jeff Buckley	177,824			
29-Mar	"Love in This Club"	Usher featuring Young Jeezy	145,840			
05-Apr	"Bleeding Love"	Leona Lewis	219,237		"Bleeding Love"	Leona Lewis
12-Apr	"Touch My Body"	Mariah Carey	285,544		"Touch My Body"	Mariah Carey
19-Apr	"4 Minutes"	Madonna featuring Justin Timberlake	216,751			
26-Apr	"Bleeding Love"	Leona Lewis	223,361	3위	"Bleeding Love"	Leona Lewis
03-May	"4 Minutes"	Madonna featuring Justin Timberlake	201,799		"Lollipop"	Lil Wayne featuring Static Major
10-May	"Bleeding Love"	Leona Lewis	235,880			"Bleeding Love"
17-May			217,128			
24-May	"Take a Bow"	Rihanna	266,696		"Take a Bow"	Rihanna
31-May			195,655			
07-Jun	"The Time of My Life"	David Cook	236,024		3위	"Lollipop"
14-Jun	"Viva la Vida"	Coldplay	219,278			
21-Jun			253,076		"Viva la Vida"	Coldplay
28-Jun			245,504			
05-Jul	"I Kissed a Girl"	Katy Perry	235,096		"I Kissed a Girl"	Katy Perry
12-Jul			205,516			
19-Jul			191,020			
26-Jul			177,340			
02-Aug			166,434			
09-Aug	"Disturbia"	Rihanna	151,317		"Disturbia"	Rihanna
16-Aug			138,949			
23-Aug			148,102			
30-Aug	"Crush"	David Archuleta	166,247	2위	"Disturbia"	Rihanna
06-Sep	"Whatever You Like"	T.I.	205,241			
13-Sep			176,040		"Whatever You Like"	T.I.
20-Sep			196,682			
27-Sep	"So What"	Pink	154,336			"So What"
04-Oct			148,909			
11-Oct	"Whatever You Like"	T.I.	193,482		"Whatever You Like"	T.I.
18-Oct	"Live Your Life"	T.I. featuring Rihanna	334,550			
25-Oct	"Womanizer"	Britney Spears	285,752			
01-Nov	"If I Were a Boy"	Beyoncé	200,928	3위	"Whatever You Like"	T.I.
08-Nov			189,990			
15-Nov			184,168			
22-Nov	"Heartless"	Kanye West	201,000	2위	"Live Your Life"	T.I. featuring Rihanna
29-Nov	"If I Were a Boy"	Beyoncé	166,000			
06-Dec	"Single Ladies (Put a Ring on It)"	Beyoncé	204,000			
13-Dec			228,000			
20-Dec			211,000			
27-Dec	"Circus"	Britney Spears	153,000	3위	"Single Ladies (Put a Ring on It)"	Beyoncé

자료: Billboard, Wikipedia

Billboard Digital Song Chart와 Hot 100 1위 (2009년)

No. 1 Digital Songs				Hot 100 No. 1 Singles		
Issue date	Song	Artist(s)	Weekly sales	Pick Position	Song	Artist(s)
03-Jan	"Single Ladies (Put a Ring on It)"	Beyoncé	149,000		"Single Ladies (Put a Ring on It)"	Beyoncé
10-Jan			419,000			
17-Jan	"Just Dance"	Lady Gaga featuring Colby O'Donis	279,000		"Just Dance"	Lady Gaga featuring Colby O'Donis
24-Jan			213,000			
31-Jan			192,000			
07-Feb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Kelly Clarkson	280,000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Kelly Clarkson
14-Feb			216,000			
21-Feb	"Crack a Bottle"	Eminem, Dr. Dre and 50 Cent	418,000		"Crack a Bottle"	Eminem, Dr. Dre and 50 Cent
28-Feb			636,000			
07-Mar			460,000			
14-Mar	"Right Round"	Flo Rida	334,000		"Right Round"	Flo Rida
21-Mar			319,000			
28-Mar			278,000			
04-Apr			224,000			
11-Apr	"Poker Face"	Lady Gaga	206,000		"Poker Face"	Lady Gaga
18-Apr			465,000			
25-Apr			335,000			
02-May			259,000			
09-May	"Boom Boom Pow"		226,000		"Boom Boom Pow"	
16-May			212,000			
23-May			215,000			
30-May			205,000			
06-Jun			240,000			
13-Jun			220,000			
20-Jun		The Black Eyed Peas	205,000			
27-Jun			249,000			
04-Jul			232,000			
11-Jul			203,000			
18-Jul	"I Gotta Feeling"		215,000			
25-Jul			205,000			
01-Aug			219,000			
08-Aug			223,000			
15-Aug			215,000			
22-Aug			197,000			
29-Aug			226,000		"I Gotta Feeling"	
05-Sep	"Party in the U.S.A."	Miley Cyrus	211,000	2위		
12-Sep			190,000			
19-Sep			179,000			
26-Sep	"I Gotta Feeling"	Black Eyed Peas	179,000			
03-Oct	"Empire State of Mind"	Jay-Z and Alicia Keys	205,000			
10-Oct			182,000			
17-Oct	"Party in the U.S.A."	Miley Cyrus	177,000	2위	"Down"	Jay Sean featuring Lil Wayne
24-Oct			255,000		"3"	Britney Spears
31-Oct	"3"	Britney Spears	171,000		"Down"	Jay Sean featuring Lil Wayne
07-Nov			196,000		"Fireflies"	Owl City
14-Nov	"Fireflies"	Owl City	173,000		"Whatcha Say"	Jason DeRulo
21-Nov			194,000		"Fireflies"	Owl City
28-Nov			181,000			
05-Dec			209,000			
12-Dec	"Bad Romance"	Lady Gaga	212,000	2위	"Empire State of Mind"	Jay-Z and Alicia Keys
19-Dec			202,000			
26-Dec			183,000			

자료: Billboard, Wikipedia

Billboard Digital Song Chart와 Hot 100 1위 (2010년)

No.1 Digital Songs				Hot 100 No.1 Singles		
Issue date	Song	Artist(s)	Weekly sales	Pick Position	Song	Artist(s)
02-Jan	"Tik Tok"	Kesha	221,000		"Tik Tok"	Kesha
09-Jan			610,000			
16-Jan			394,000			
23-Jan			252,000			
30-Jan			244,000			
06-Feb	"Today Was a Fairytale"	Taylor Swift	325,000	2위	"Imma Be"	The Black Eyed Peas
13-Feb	"Tik Tok"	Kesha	200,000			
20-Feb	"Imma Be"	The Black Eyed Peas	236,000			
27-Feb	"We Are the World 25 for Haiti"	Artists for Haiti	267,000	2위		
06-Mar			208,000			
13-Mar	"Imma Be"	Black Eyed Peas	187,000		"Imma Be"	The Black Eyed Peas
20-Mar	"Break Your Heart"	Taio Cruz featuring Ludacris	273,000		"Break Your Heart"	Taio Cruz featuring Ludacris
27-Mar			202,000		"Rude Boy"	Rihanna
03-Apr			176,000			
10-Apr	"Hey, Soul Sister"	Train	219,000	3위		
17-Apr			204,000			
24-Apr						
01-May	"Nothin' on You"	B.o.B featuring Bruno Mars	184,000		"Nothin' on You"	B.o.B featuring Bruno Mars
08-May			179,000			
15-May	"OMG"	Usher featuring will.i.am	217,000		"OMG"	Usher featuring will.i.am
22-May	"Not Afraid"	Eminem	380,000		"Not Afraid"	Eminem
29-May	"California Gurls"	Katy Perry featuring Snoop Dogg	294,000		"OMG"	Usher featuring will.i.am
05-Jun	"OMG"	Usher featuring will.i.am	236,000			
12-Jun	"California Gurls"	Katy Perry featuring Snoop Dogg	269,000			
19-Jun			318,000			
26-Jun			353,000			
03-Jul			337,000			
10-Jul			338,000			
17-Jul	"Love the Way You Lie"	Eminem featuring Rihanna	320,000			
24-Jul			314,000			
31-Jul			352,000			
07-Aug			332,000			
14-Aug			300,000			
21-Aug	"Mine"	Taylor Swift	297,000	3위	"Love the Way You Lie"	Eminem featuring Rihanna
28-Aug	"Love the Way You Lie"	Eminem featuring Rihanna	254,000			
04-Sep	"Right Above It"	Lil Wayne featuring Drake	225,000	6위		
11-Sep	"Teenage Dream"	Katy Perry	259,000		"Teenage Dream"	Katy Perry
18-Sep			221,000			
25-Sep			209,000			
02-Oct	"Only Girl (In the World)"	Rihanna	249,000		"Just the Way You Are"	Bruno Mars
09-Oct	"Just the Way You Are"	Bruno Mars	188,000			
16-Oct	"Like a G6"	Far East Movement featuring The Cataracs and Dev	216,000			
23-Oct			221,000			
30-Oct	"Back to December"	Taylor Swift	241,000	6위		
06-Nov	"Like a G6"	Far East Movement	204,000			
13-Nov	"We R Who We R"	Kesha	280,000		"We R Who We R"	Kesha
20-Nov	"What's My Name?"	Rihanna featuring Drake	235,000		"What's My Name?"	Rihanna featuring Drake
27-Nov	"Teenage Dream"	Glee Cast	214,000		"Like a G6"	Far East Movement
04-Dec	"Forget You"	Glee Cast featuring Gwyneth Paltrow	192,000	2위	"Only Girl (In the World)"	Rihanna
11-Dec	"Firework"	Katy Perry	232,000		"Raise Your Glass"	Pink
18-Dec			212,000		"Firework"	Katy Perry
25-Dec			201,000			

자료: Billboard, Wikipedia

Billboard Digital Song Chart와 Hot 100 1위 (2011년)

No. 1 Digital Songs				Hot 100 No. 1 Singles		
Issue date	Song	Artist(s)	Weekly sales	Pick Position	Song	Artist(s)
01-Jan	"Grenade"	Bruno Mars	212,000		"Firework"	Katy Perry
08-Jan			559,000		"Grenade"	Bruno Mars
15-Jan			425,000		"Firework"	Katy Perry
22-Jan			275,000		"Grenade"	Bruno Mars
29-Jan	"Hold It Against Me"	Britney Spears	411,000	2위	"Hold It Against Me"	Britney Spears
05-Feb	"Grenade"	Bruno Mars	204,000		"Grenade"	Bruno Mars
12-Feb	"Fuckin' Perfect"	Pink	241,000			
19-Feb	"I Need a Doctor"	Dr. Dre f. Eminem and Skylar Grey	226,000		"Black and Yellow"	Wiz Khalifa
26-Feb	"Born This Way"	Lady Gaga	448,000		"Born This Way"	Lady Gaga
05-Mar			509,000			
12-Mar			286,000			
19-Mar			231,000			
26-Mar	"E.T."	Katy Perry featuring Kanye West	216,000		"E.T."	Katy Perry featuring Kanye West
02-Apr			261,000			
09-Apr			254,000			
16-Apr			327,000			
23-Apr	"S&M"	Rihanna featuring Britney Spears	323,000		"S&M"	Rihanna featuring Britney Spears[25]
30-Apr			293,000			
07-May	"E.T."	Katy Perry featuring Kanye West	344,000		"E.T."	Katy Perry featuring Kanye West
14-May			300,000			
21-May	"Rolling in the Deep"	Adele	294,000		"Rolling in the Deep"	Adele
28-May			353,000			
04-Jun			297,000			
11-Jun			254,000			
18-Jun	"Last Friday Night (T.G.I.F.)"	Katy Perry	244,000		"Give Me Everything"	Pitbull f. Ne-Yo, Afrojack and Nayer
25-Jun			224,000			
02-Jul			235,000			
09-Jul			226,000			
16-Jul	"Party Rock Anthem"	LMFAO f. Lauren Bennett & GoonRock	258,000		"Party Rock Anthem"	LMFAO f. Lauren Bennett & GoonRock
23-Jul			236,000			
30-Jul			215,000			
06-Aug			209,000			
13-Aug	"Moves Like Jagger"	Maroon 5 featuring Christina Aguilera	202,000		"Last Friday Night (T.G.I.F.)"	Katy Perry
20-Aug			185,000			
27-Aug	"She Will"	Lil Wayne featuring Drake	219,000	3위	"Moves Like Jagger"	Maroon 5 featuring Christina Aguilera
03-Sep	"Moves Like Jagger"	Maroon 5 featuring Christina Aguilera	255,000			
10-Sep	"Someone Like You"	Adele	217,000		"Someone Like You"	Adele
17-Sep	"Someone Like You"	Adele	275,000		"Moves Like Jagger"	Maroon 5 featuring Christina Aguilera
24-Sep	"Moves Like Jagger"	Maroon 5 featuring Christina Aguilera	220,000			
01-Oct	"Moves Like Jagger"	Maroon 5 featuring Christina Aguilera	221,000			
08-Oct	"Someone Like You"	Adele	233,000			
15-Oct			222,000		"Someone Like You"	Adele
22-Oct			218,000			
29-Oct			207,000			
05-Nov	"We Found Love"	Rihanna featuring Calvin Harris	231,000		"We Found Love"	Rihanna featuring Calvin Harris
12-Nov			243,000			
19-Nov			236,000			
26-Nov			227,000			
03-Dec	"Sexy and I Know It"	LMFAO	211,000		"It Will Rain"	Bruno Mars
10-Dec			226,000			
17-Dec	"It Will Rain"	Bruno Mars	166,000	3위	"Sexy and I Know It"	LMFAO
24-Dec	"Sexy and I Know It"	LMFAO	149,000			
31-Dec			152,000			

자료: Billboard, Wikipedia

Billboard Digital Song Chart와 Hot 100 1위 (2012년)

No. 1 Digital Songs				Hot 100 No. 1 Singles		
Issue date	Song	Artist(s)	Weekly sales	Pick Position	Song	Artist(s)
07-Jan	"Sexy and I Know It"	LMFAO	395,000		"Sexy and I Know It"	LMFAO
14-Jan			417,000			
21-Jan	"I Won't Give Up"	Jason Mraz	229,000	8위	"We Found Love"	Rihanna featuring Calvin Harris
28-Jan	"Set Fire to the Rain"	Adele	193,000			
04-Feb	"Turn Me On"	David Guetta featuring Nicki Minaj	198,000	4위	"Set Fire to the Rain"	Adele
11-Feb			225,000			
18-Feb	"Stronger (What Doesn't Kill You)"	Kelly Clarkson	237,000		"Stronger (What Doesn't Kill You)"	Kelly Clarkson
25-Feb	"We Are Young"	Fun featuring Janelle Monáe	296,000			
03-Mar	"Part of Me"	Katy Perry	411,000		"Part of Me"	Katy Perry
10-Mar			291,000		"Stronger (What Doesn't Kill You)"	Kelly Clarkson
17-Mar	"We Are Young"	Fun featuring Janelle Monáe	302,000			
24-Mar			322,000			
31-Mar			349,000			
07-Apr			387,000		"We Are Young"	Fun featuring Janelle Monáe
14-Apr	"Boyfriend"	Justin Bieber	521,000	2위		
21-Apr	"We Are Young"	Fun featuring Janelle Monáe	390,000			
28-Apr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Gotye featuring Kimbra	542,000			
05-May	"Payphone"	Maroon 5 featuring Wiz Khalifa	493,000	2위		
12-May			414,000			
19-May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Gotye featuring Kimbra	348,000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Gotye featuring Kimbra
26-May			321,000			
02-Jun			293,000			
09-Jun			301,000			
16-Jun			284,000			
23-Jun	"Call Me Maybe"	Carly Rae Jepsen	296,000			
30-Jun			292,000			
07-Jul			263,000			
14-Jul			251,000			
21-Jul			244,000			Carly Rae Jepsen
28-Jul	"Wide Awake"	Katy Perry	205,000	2위		
04-Aug	"Whistle"	Flo Rida	211,000			
11-Aug			237,000			
18-Aug	"Home"	Phillip Phillips	228,000	9위		
25-Aug	"Whistle"	Flo Rida	217,000		"Whistle"	Flo Rida
01-Sep			623,000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Taylor Swift
08-Sep			307,000		"Whistle"	Flo Rida
15-Sep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Taylor Swift	253,000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Taylor Swift
22-Sep			284,000			
29-Sep			226,000		"One More Night"	Maroon 5

자료: Billboard, Wikipedia

전세계 Top 40 콘서트 투어 매출 순위

Rank	Actual gross	Inflation (adjusted 2012 gross)	Artist	Tour name	Year(s)	Shows	Attendance	Average gross (millions)	Average attendance
1	\$736,421,586	\$760,823,721	U2	360 Tour	2009-11	110	7,272,046	6.7	66,110
2	\$558,255,524	\$625,719,239	The Rolling Stones	A Bigger Bang Tour	2005-2007	144	4,680,000	3.8	32,500
3	\$441,121,000	\$470,134,147	AC/DC	Black Ice World Tour	2008-2010	167	4,846,965	2.6	29,023
4	\$407,713,266	\$441,673,561	Madonna	Sticky & Sweet Tour	2008-2009	85	3,545,899	4.79	41,716
5	\$389,047,636	\$448,515,796	U2	Vertigo Tour	2005-2006	131	4,619,021	2.96	35,259
6	\$377,368,148	\$377,368,148	Roger Waters	The Wall	2010-2012	192	3,056,048	1.9	16,700
7	\$358,825,665	\$387,332,062	The Police	The Police Reunion Tour	2007-2008	156	3,300,912	2.3	21,160
8	\$336,017,048	\$468,786,069	The Rolling Stones	Bridges To Babylon Tour	1997-1999	143	5,576,032	2.3	38,993
9	\$316,365,576	\$482,528,321	The Rolling Stones	Voodoo Lounge Tour	1994-1995	124	6,336,776	2.6	51,103
10	\$299,520,230	\$378,409,784	The Rolling Stones	Licks Tour	2002-2003	115	3,470,945	2.6	30,182
11	\$279,200,000	\$301,380,649	Celine Dion	Taking Chances Tour	2008-2009	132	2,600,000	2.9	27,424
12	\$251,112,882	\$267,628,928	Eagles	Long Road Out Of Eden Tour	2008-2011	155	2,001,773	1.6	12,915
13	\$250,000,000	\$392,007,185	Pink Floyd	The Division Bell Tour	1994	110	5,500,000	2.3	45,000
14	\$235,000,000	\$253,669,243	Bruce Springsteen	Magic Tour	2007-2008	100	2,198,353	2.4	21,983
15	\$227,400,000	\$234,935,148	Lady Gaga	The Monster Ball Tour	2009-2011	201	2,500,000	1.13	12,438
16	\$221,500,000	\$279,840,087	Bruce Springsteen	The Rising Tour	2002-2003	120	3,232,384	1.8	31,081
17	\$217,245,629	\$231,534,179	Metallica	World Magnetic Tour	2008-2010	187	2,699,211	1.4	16,976
18	\$210,650,974	\$227,385,843	Bon Jovi	Lost Highway Tour	2007-2008	99	2,157,675	2.1	21,794
19	\$205,000,000	\$297,495,314	Cher	Living Proof: The Farewell Tour	2002-2005	326	3,500,000	0.6	10,800
20	\$201,000,000	\$214,220,052	Bon Jovi	The Circle Tour	2010	80	1,909,234	3.8	36,023
21	\$194,754,447	\$224,523,780	Madonna	Confessions Tour	2006	60	1,210,294	3.2	20,171
22	\$185,175,360	\$191,311,348	Take That	Progress Live	2011	35	1,806,473	5.3	51,613
23	\$171,677,027	\$244,792,229	U2	PopMart Tour	1997-1998	93	3,870,803	1.8	42,322
24	\$167,000,000	\$180,910,191	Bruce Springsteen	Working On A Dream Tour	2009	80	1,831,770	2.1	22,897
25	\$165,000,000	\$238,880,597	Michael Jackson	HIStory World Tour	1996-1997	82	4,500,000	2	54,878
26	\$160,000,000	\$215,930,435	Cher	Do You Believe? Tour	1999-2000	180	3,000,000	1.31	18,750
27	\$151,000,000	\$242,935,729	U2	Zoo TV Tour	1992-1993	157	5,350,554	0.96	34,080
28	\$149,900,000	\$159,759,133	Pink	Funhouse Tour	2009-2010	163	2,331,756	0.92	14,305
29	\$142,977,988	\$147,715,720	Bon Jovi	Bon Jovi Live	2011	57	1,519,598	2.5	26,659
30	\$142,844,463	\$187,488,391	U2	Elevation Tour	2001	112	2,162,282	1.3	19,306
31	\$141,000,000	\$158,039,480	Tim McGraw and Faith Hill	Soul2Soul II Tour	2006-2007	117	1,673,667	1.2	14,304
32	\$135,000,000	\$253,111,409	Pink Floyd	A Momentary Lapse of Reason Tour	1988-1989	199	4,250,000	0.68	21,250
33	\$131,800,000	\$142,778,222	Britney Spears	The Circus Starring Britney Spears	2009	97	1,500,000	1.4	15,488
34	\$131,388,461	\$151,471,940	Bon Jovi	Have A Nice Day Tour	2005-2006	78	1,823,834	1.7	23,382
35	\$129,059,653	\$144,656,173	Genesis	Turn It On Again: The Tour	2007	46	1,262,393	2.8	27,443
36	\$126,165,542	\$163,023,154	Paul McCartney	Driving Tour	2002	58	988,077	2.2	17,036
37	\$126,000,000	\$136,009,892	Coldplay	Viva la Vida Tour	2008-2010	111	1,700,000	1.3	18,085
38	\$125,738,964	\$247,090,862	Michael Jackson	Bad	1987-1989	123	4,498,300	1	36,571
39	\$124,790,787	\$147,653,277	Madonna	Re-Invention World Tour	2004	56	896,787	2.1	16,428
40	\$123,101,131	\$129,142,012	Taylor Swift	Speak Now World Tour	2011-2012	111	1,631,957	1.1	19,000

자료: Wikipedia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0	2011	2012E	2013E	2014E
매출액	448	781	1,240	1,730	1,950
매출원가	241	470	657	830	917
매출총이익	207	311	583	900	1,034
판매비및일반관리비	104	134	211	251	273
영업이익(보고)	103	173	372	649	761
영업이익(핵심)	103	178	372	649	761
영업외손익	24	-1	-6	-9	-10
이자수익	1	3	5	7	8
배당금수익	0	0	0	0	0
외환이익	3	6	0	0	0
이자비용	0	0	0	0	0
외환손실	0	3	0	0	0
관계기업지분법손익	13	-1	0	0	0
투자및기타자산처분손익	0	0	0	0	0
금융상품평가및기타금융이익	7	0	0	0	0
기타	0	-7	-11	-15	-17
법인세차감전이익	127	176	366	640	751
법인세비용	29	47	89	155	182
유효법인세율 (%)	23.1%	26.7%	24.2%	24.2%	24.2%
당기순이익	98	129	277	485	569
지배주주지분순이익(억원)	98	129	277	485	569
EBITDA	121	203	399	675	786
현금순이익(Cash Earnings)	115	154	304	511	595
수정당기순이익	92	129	277	485	569
증감율(% YoY)					
매출액	25.4	74.5	58.7	39.5	12.7
영업이익(보고)	41.6	67.6	114.6	74.4	17.2
영업이익(핵심)	40.0	71.6	109.5	74.4	17.2
EBITDA	46.9	67.8	96.9	69.3	16.5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134.7	N/A	114.4	75.0	17.3
EPS	134.6	N/A	64.4	72.0	17.3
수정순이익	58.7	32.6	114.3	75.0	17.3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0	2011	2012E	2013E	2014E
영업활동현금흐름	99	157	195	458	571
당기순이익	98	129	277	485	569
감가상각비	13	10	15	17	19
무형자산상각비	5	15	12	9	7
외환손익	0	-1	0	0	0
자산처분손익	0	1	0	0	0
지분법손익	-13	1	0	0	0
영업활동자산부채 증감	5	-10	-136	-53	-24
기타	-7	13	27	0	0
투자활동현금흐름	-49	-331	-186	-197	-102
투자자산의 처분	-20	-246	-162	-173	-78
유형자산의 처분	0	1	0	0	0
유형자산의 취득	-30	-24	-24	-24	-24
무형자산의 처분	-3	-59	0	0	0
기타	3	-3	0	0	0
재무활동현금흐름	1	412	1	1	1
단기차입금의 증가	0	0	0	0	0
장기차입금의 증가	0	0	0	0	0
자본의 증가	1	412	0	0	0
배당금지급	0	0	0	0	0
기타	0	0	1	1	1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51	240	10	262	470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3	129	369	379	64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94	369	379	641	1,111
Gross Cash Flow	94	167	331	511	595
Op Free Cash Flow	69	62	149	441	555

대차대조표

(단위: 억원)

12월 결산	2010	2011	2012E	2013E	2014E
유동자산	216	742	1,083	1,624	2,219
현금및현금성자산	94	369	379	641	1,111
유동금융자산	15	273	433	604	680
매출채권및유동채권	86	75	231	322	363
재고자산	18	26	41	57	65
기타유동비금융자산	3	0	0	0	0
비유동자산	117	162	207	239	253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30	36	82	114	129
투자자산	42	11	13	16	17
유형자산	40	62	71	78	83
무형자산	7	52	40	31	24
기타비유동자산	0	1	1	1	1
자산총계	333	904	1,290	1,863	2,472
유동부채	122	138	220	306	345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122	122	193	270	304
단기차입금	0	0	0	0	0
유동성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0	17	26	37	41
비유동부채	8	2	3	4	5
장기매입채무및비유동채무	0	0	0	0	0
사채및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8	2	3	4	5
부채총계	130	140	222	310	350
자본금	20	27	53	53	53
주식발행초과금	44	450	450	450	450
이익잉여금	139	259	536	1,021	1,590
기타자본	0	29	29	29	29
지배주주지분자본총계	204	764	1,068	1,553	2,122
비지배주주지분자본총계	0	0	0	0	0
자본총계	204	764	1,068	1,553	2,122
순차입금	-109	-641	-811	-1,245	-1,791
총차입금	0	0	0	0	0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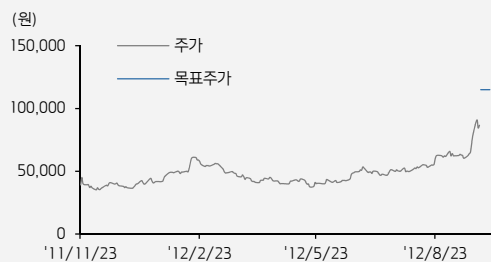
(단위: 원, 배, %)

12월 결산	2010	2011	2012E	2013E	2014E
주당지표(원)					
EPS	1,308	1,663	2,733	4,701	5,514
BPS	2,721	7,660	10,346	15,048	20,562
주당EBITDA	1,616	2,603	3,930	6,539	7,617
CFPS	1,539	1,984	2,997	4,955	5,763
DPS	0	0	0	0	0
주가배수(배)					
PER	0.0	22.1	31.7	18.4	15.7
PBR	0.0	4.8	8.4	5.8	4.2
EV/EBITDA	-0.9	15.0	20.4	11.4	9.1
PCFR	0.0	18.6	28.9	17.5	15.0
수익성(%)					
영업이익률(보고)	23.1	22.2	30.0	37.5	39.0
영업이익률(핵심)	23.1	22.7	30.0	37.5	39.0
EBITDA margin	27.0	25.9	32.2	39.0	40.3
순이익률	21.8	16.6	22.4	28.0	29.2
자기자본이익률(ROE)	63.8	26.7	30.3	37.0	31.0
투자자본이익률(ROIC)	151.5	155.5	157.6	181.8	188.0
안정성(%)					
부채비율	63.7	18.3	20.8	20.0	16.5
순차입금비율	-53.6	-84.0	-76.0	-80.2	-84.4
이자보상배율(배)	N/A	N/A	N/A	N/A	N/A
활동성(배)					
매출채권회전율	6.6	9.9	8.1	6.3	5.7
재고자산회전율	32.1	35.8	37.0	35.1	32.0
매입채무회전율	4.2	6.6	7.9	7.5	6.8

투자의견 변동내역 (2개년)

종목명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2870)	2012/09/27	BUY(Initiate)	115,000원

목표주가 추이 (2개년)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업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 ~ +20% 주가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 ~ -10% 변동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 ~ -10% 주가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 ~ -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